

탈신화화 수단으로서의 반(反)전기: 파스테르나크 전기를 중심으로*

박 선 영**

- 개요 -

이 글은 전기의 하부 장르로 이해할 수 있는 ‘반전기’를 탈신화화의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해당 장르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넓은 의미에서 전기라는 장르가 그 기술 대상에 대한 일종의 신화화 구축에 일조하는 것으로 볼 때, 반전기란 신화화된 대상에 대한 탈신화화의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내에서 ‘반전기’라는 용어는 저널리스트 출신의 전기 작가 타마라 카타예바의 저서들(『안티-아흐마토프』, 『안티-아흐마토프 2』)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카타예바는 아흐마토프를 비롯하여 푸슈킨, 파스테르나크의 사생활에 집중하며 익히 알려진 이 신화적 인물들의 ‘다른’ 면을 파헤친다. 이 글은 동일 대상에 대해 상반된 시선을 견지하는 두 전기, 즉 드미트리 비코프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2005)와 카타예바의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2009)를 비교함으로써 전기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전자와 반전기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후자 간의 차이점, 즉 전기 작가의 태도 및 서술 기법, 자료 선택상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전기가 탈신화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한다.

주 제 어: 전기, 반(反)전기, 탈신화화, 파스테르나크, 카타예바, 비코프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2015451). 아울러, 이 논문은 2018년 4월 7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러시아문학회 제82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의 발표문(「전기 vs. 반(反)전기: 탈신화화 수단으로서의 반전기」)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값진 제언을 해주신 학회 토론자 및 익명의 세 분 심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충북대학교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강사.

1. 서론

전기 작가의 대상 인물에 대한 태도 및 관계가 저작물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¹⁾ 레온 에텔은 저서 『문학 전기(Literary biography)』에서 “그[전기 작가 - 논문의 저자]는 애정을 지녀야 하는 동시에 거리감을 지녀야 하고, 몰두되어야 하는 동시에 몰두되지 말아야 한다. 판단에 있어서는 얼음처럼 차가워야 되나, 이해에 있어서는 애정어려야 하고 인간적이어야 한다”²⁾라고 적으며 전기 작가의 딜레마에 대해 적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전기 작가는 그가 수집한 서로 상이한 사실들에 논리와 일관성을 부여할 것이 요구된다. 비록 그가 추구하는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아주 임의적인 것이고, 때로는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³⁾라고 주장함으로써 전기 작가는 비평적 판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취사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아흐마토바 전기의 경우, 전기 작가의 대상 인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저서의 제목에서부터 얼마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로베르타 리더의 『안나 아흐마토바: 시인이자 예언자(Anna Akhmatova. Poet and Prophet)』 vs. 타마라 카타예바의 『안티-아흐마토바(Анти-Ахматова)』) 때로는 전기 작가가 대상 인물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주 중립적인 제목을 채택하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관찰되는 바이다(스베틀라나 코발렌코의 『안나 아흐마토바(Анна Ахматова)』를 비롯하여 ‘몰로다야 그바르디아(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출판사가 출간하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기 시리즈인 ‘ЖЗЛ(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은 모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부제 없이 전기 대상의 이름만을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또한 해당 저작의 객관성 및 중립성 담보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기 작가의 의도에 따라, 혹은 프로이트식으로 말해, 전기 작가의 대상 인물에 투사된 욕망의 차이에 따라, 기술되는 동일인물에 대한 전기의

1) 본 논문의 저자는 전기 작가가 대상 인물의 생애에 대해 그 어떠한 평(評) 없이 사실만을 기록해내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전기’와 ‘평전’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전기’로 통칭하고자 한다.

2) 레온 에텔(1983) 『작가론의 방법: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김윤식 역, 삼영사, 28쪽.

3) 레온 에텔(1983), 96.

내용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기 작가의 집필 의도를 고려할 때, 전기는 크게 1) 대상인물의 생애 가운데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신화화된 전기, 2)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히 거론되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일반적인 형태의 전기, 3)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탈신화화된 전기로 나뉠 수 있을 것이며, 이 가운데 세 번째로 제시된 탈신화화된 전기는 다른 아닌 ‘반(反)전기’로 능히 명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 ‘반전기’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아흐마토프 신화를 탈구축하려는 명확한 의도로 집필된 카타예바의 저서 『안티-아흐마토프(Анти-Ахматова)』(2007)의 발간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탈신화화된 전기를 ‘반전기’로 명명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동일 대상 인물에 대해 상반된 시선을 견지하는 두 전기, 즉 드미트리 비코프(Дмитрий Быков)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Борис Пастернак)』(2005)와 타마라 카타예바(Тамара Катаева)의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 사생활. 주제와 변주(Другой Пастернак. Личная жизнь. Темы и вариации)』(2009)를 비교함으로써 전기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전자와 반전기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후자 간의 차이점, 즉 전기 작가의 대상 인물에 대한 태도 및 서술 기법, 자료 선택상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살펴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반전기가 탈신화화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2. 반(反)전기란 무엇인가?

전기와 반(反)전기의 차이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반전기(антибиография/antibiography)’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반전기’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진행된 전기 연구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는데, 이는 ‘반전기’라는 용어 자체가 드물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더해 ‘반(anti)’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게 사용된 경우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프랑스의 데피네 부인(Madame d'Épinay)이 쓴 『몽브리앙 부인 이야기(Histoire de Madame de Montbrillant)』는 이러한 논의점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저작이라고 하겠다. 발간 초기에 이 저작은, 루소가 데피네 부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불화를 겪은 후 자신을 변호할 목적으로 집필한 『고백록

(Les Confessions)』에 ‘대항하여(contre)’ 쓰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로 인해 ‘반(反)고백록(Les Contre-Confession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루소의 유명세에 기대어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⁴⁾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저작은 내용에 있어 반(反)루소적이라는 점에서만 ‘반고백록’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는 장르 문제가 개입하여 소설(자전적 소설)과 비망록(자서전)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反)고백록’으로 불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반(contre)고백록’은 ‘탈신화화’와 연관된 내용적인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설과 비망록이라는 장르 경계성과 연관된 장르·형식적인 측면의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글의 장르 및 형식이 비정통적이라는 점에서 ‘반전기’라 정의된 또 다른 예로 영국의 소설가 조나단 코(Jonathan Coe)가 쓴 전기 『성난 코끼리처럼: B. S. 존슨의 이야기(Like a fiery elephant: The story of B. S. Johnson)』를 들 수 있다. 이 저작이 2005년 새뮤얼존슨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을 때, 심사위원장인 수 맥그레고(Sue MacGregor)는 이 저작을 ‘처음에는 꽤 좋아할 수 없는 주제인 데다 저자가 자료를 수집해나가는 방식 또한 비관습적인 독특한 전기(an unusual biography)’로 정의했는데 조나단 코크의 수상 소식을 보도한 기자는 이러한 ‘독특한 전기’를 ‘반전기(anti-biography)’로 명명하고 있었다.⁵⁾ 다른 한편으로, ‘반전기’라는 용어는 부정적 인물, 즉 ‘반주인공(antihero)’의 생애를 다룬 픽션의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하면서⁶⁾ 해당 용어의 용례를 확장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당 용어가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통념상 대상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기존의 평가를 뒤집을만한 사실들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폭로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보장 및 확보하게 되는 성격의 글로 이해되는 예시가 ‘반전기’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전기라는 것이 그 대상 인물에 대한 일종의 신화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정 정도 깔려 있다고 볼 때,⁷⁾ ‘반전기’란 신화

4) 이봉지(2003) 「18세기 프랑스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 상황: 데피네 부인의 『몽브리앙 부인 이야기』」,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2집, 265-267쪽.

5) Luke Leitch(2005) “‘Anti-biography’ of a tormented genius wins £30,000 prize,” *Evening Standard*, 2005.06.15.

6) V. Robillard(2011) *The Devil Sure Does: The Anti-Biography of Nathan Dawn*, Bloomington: Xlibris; J. Macgregor(2014) *The Antibiography of Ian McNulty*, Bloomington: Xlibris.

화된 대상에 대해 탈신화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반전기’라는 명백한 표제를 달고 출간된 저작들은 한결같이 이미 신화화되어 있는 인물을 ‘탈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토마스 에디슨이나 간디의 생애를 기존과는 ‘다른’ 시각, 즉 부정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한 저작을 들 수 있다.⁸⁾

흥미로운 점은 이 ‘반전기’라는 용어가 하나의 장르로서 상대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곳이 러시아라는 사실이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위키백과사전’을 들여다보자면, 2018년 9월 현재, 러시아어 버전에만 ‘антибиография’ 항목이 상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 내 ‘반전기’라는 개념의 부상은 2007년에 발표된 타마라 카타예바의 『안티-아흐마토바(Анти-Ахматова)』의 출간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반전기’의 기원이야 16세기 안드레이 쿠르프스키가 이반 뇌제에 관해 기술한 『모스크바 대공 이야기(История о великом князе Московско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겠으나⁹⁾ ‘антибиография’라는 개념을 일반화시킨 계기가 바로 카타예바의 저서 『안티-아흐마토바』란 점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명의 저널리스트를 하루아침에 유명인으로 만들어버린¹⁰⁾ 『안티-아흐마토

- 7) 신화화의 가장 대표적이고도 극단적인 예는 각 종교의 교리를 기록한 경전인 성서 및 성자전이라고 할 수 있다.
- 8) D. E. Nye(1983) *Invented Self: An Anti-Biography, from Documents of Thomas A. Edison*, Odense: Odense University Press; M. De Saint-Cheron(2016) *Gandhi: Anti-Biography of a Great Soul*, London: Routledge.
- 9) В. Шубинский(2008) “Антибиографии: неистовых баб басни”, *OpenSpace.ru*. 2008.06.20, <http://os.colta.ru/literature/projects/79/details/1568/>(검색일: 2018.09.10).
- 10) 실제로 『안티-아흐마토바』가 발간되기 전까지 카타예바라는 인물에 대해 알려진 바는 전혀 없었고 카타예바는 첫 저서 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비화 전략을 고수하였기에 심지어 이 저서의 실제 저자는 ‘빅토르 토포로프’라는 설이 존재하기도 했다. ‘타마라 카타예바’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는 러시아판 위키백과를 비롯하여 여러 웹상의 정보를 검색해 보아도 작가가 되기 이전에 저널리스트, 번역가, 사업가, 발달장애아동치료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 심지어 작가의 출생연도조차도 공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카타예바의 전(前)남편인 작곡가 세르게이 파블렌코가 사망했을 때 카타예바가 자신의 소셜미디어(<https://tamara-kataeva.livejournal.com/>)에 ‘전 남편이 사망했다’라는 짙막한 코멘트와 함께 『이즈베스티야』지 기사를 링크시켜놓

바』는 제목에 이미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흐마토바 신화’를 탈구축하려는 명확한 목적에 의해 집필된 저작이었고 온·오프라인상에서 해당 저서에 대한 격렬한 찬반논쟁을 낳기도 하며 러시아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작이다. 데뷔작이었던 이 저서의 성공에 한껏 고무된 카타예바는, 빅토르 토포로프나 알렉산드르 졸코프스키 같은 반(反)아흐마토바적 경향의 평론가들의 지지 속에서 탈신화화를 목표로 한 일련의 저작들을 연이어 발표하게 되는데,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 사생활. 주제와 변주』(2009), 『푸슈킨. 시기심(Пушкин. Ревность)』(2010), 『노예 해제: 안티-아흐마토바 2(Отмена рабства: Анти-Ахматова-2)』(2011)는 ‘문화 격변기(период культурного перелома)’이자 ‘위기의 시대(кризисная эпоха)’로 일컬어지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에 하나의 트렌드처럼 생겨난 ‘반전기’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저작들로 간주되고 있다.¹¹⁾ 말하자면, ‘반전기’라는 장르는 큰 틀에서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도드라진 탈권위적·탈신화적 성격의 문화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았다는 점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11) 참고로, 러시아판 위키백과(<https://ru.wikipedia.org/>)가 제시하고 있는 ‘러시아어로 쓰인 가장 유명한 반전기들’은 다음과 같다: 안드레이 쿠르프스키의 『모스크바 대공 이야기』 속 이반 뇌제에 관한 이야기(16세기),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재능』 속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에 관한 장(1937), 니콜라이 발렌티노프의 『초기의 레닌』(1940년대)과 『잘 알려지지 않은 레닌』(1972), 아르카디 벨린코프의 『유리 티나노프』(1961)와 『소비에트 인텔리겐트의 굴복과 파멸. 유리 올레샤』(1976), 안드레이 시냐프스키의 『푸슈킨과의 산책』(1968), 유리 카라프치예프스키의 『마야코프스키의 부활』(1983), 베네딕트 예로페예프의 『나의 자그마한 레닌 컬렉션』(1988), 미하일 엘리자로프의 『파스테르나크』(2003), 타마라 카타예바의 『안티-아흐마토바』(2007), 미하일 졸로토노소프의 『다른 모습의 체호프: 여성혐오주의』(2007), 타마라 카타예바의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2009). 여기서 언급된 마지막 저작 이후에도 카타예바의 저작 몇 편이 더 출간된 것을 감안하면 ‘반전기’라는 것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유독 두드러진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현대 문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신화화 현상의 확산 원인을 ‘새로운 것에 대한 인간의 유구한 이끌림’으로 파악한 언어학자 니콜라이 페르초프는 푸슈킨 생전에 이미 시도된 이러한 탈신화화 현상의 시초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정 전체를 추적하면서 특별히 레프 로세프, 제럴드 스미스, 알렉산드르 졸코프스키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Н. Перцов(2008) “О феномене демифологизации классиков в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е (в связи с «детской резвостью» двух почтенных профессоров)”, *Русский Журнал*, 2008.07.23, <http://www.russ.ru/layout/set/print/pole/O-fenomene-demifologizacii-klassikov-v-sovremennoj-kul-ture>(검색일: 2018.09.05).

한편, 탈신화화를 목적으로 하는 ‘안티(anti)’적 글쓰기는 크게 세 가지, 1) 반전기, 2) 패러디 등의 기법을 적극 활용한 문학작품, 3) 문학 및 사회 비평으로 나뉠 수 있을 터인데, 이 세 유형의 글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유형(반전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2)의 경우 픽션임을 인지하고 진실의 문제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3)의 경우 주장에 대한 찬반 의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반면, 논픽션으로 인지되는 1)의 경우는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 즉 진실의 문제로 접근하여 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아흐마토바의 탈신화화 시도를 예로 들어보자면, 1)의 경우 아흐마토바의 사생활을 폭로한 지인들의 회상록들과 카타예바의 『안티-아흐마토바』를 들 수 있을 것이고, 2)의 경우 아흐마토바의 초기 작품을 모방하여 시를 쓰는 여주인공을 등장시켜 아흐마토바를 조롱 및 패러디하는 나보코프의 장편 소설 『프닌(Пнин)』(1957)이나¹²⁾ 아흐마토바가 제 창작 유산의 ‘달걀보다 적은 검고 광택 없는 알’을 낳고 있는 지저분한 임신한 노파로 묘사되고 있는 소로킨의 장편 소설 『푸른 비계(Голубое сало)』(1999)을 들 수 있을 것이며,¹³⁾ 3)의 경우 스탈린과 아흐마토바의 유사점을 나열하며 아흐마토바를 혹평한 평론가 빅토르 토포로프와 문학 연구자 알렉산드르 졸코프스키의 저작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¹⁴⁾ 그리고

1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바람. Barry P. Scherr(2006) “Settling Accounts with Russia’s Silver Age: Nabokov Writes Akhmatova,” *Russian Review*, Vol. 65, No. 1, pp. 35-52.

13) 소로킨의 소설 속에서는 아흐마토바뿐 아니라 러시아의 문화 전통 전체가 7개의 클론(톨스토이-4, 도스토예프스키-2, 체호프-3, 아흐마토바-2, 파스테르나크-1, 나보코프-7, 플라토노프-4)으로 제시된 채 패러디되고 있다. 소로킨의 소설은 출간 이후 격렬한 찬반양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가운데 샬탈로프의 글은 이런 양론을 다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Александр Шаталов(1999) “«Голубое сало»: гурманство или каннибализм? Владимир Сорокин в поисках утраченного времени”, *Дружба Народов*, № 10, <http://magazines.russ.ru/druzhba/1999/10/shatal.html>(검색일: 2018.09.10).

14) 빅토르 토포로프가 아흐마토바와 스탈린의 사망일이 3월 5일로 동일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쓴 에세이 「기념일 포맷(Юбилейный формат)」(2003)에서 스탈린과 아흐마토바의 유사점을 지적하였다면, 자칭 ‘아흐마토바와 투쟁하는 자(ахматовборческий)’인 알렉산드르 졸코프스키는 「공포, 중량, 대리석(Страх, тяжесть, мрамор)」(1995)과 「아흐마토바의 창작 및 생애에 나타난 위력 기술에 부쳐(К технологии власти в творчестве и жизнетворчестве Ахматовой)」(1998) 등의 논문에서 스탈린과 아

위의 세 종류의 ‘안티’적 글쓰기 가운데 러시아의 일반 대중에게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예는 다른 아닌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카타예바의 『안티-아흐마토바』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¹⁵⁾

카타예바가 저술한 ‘반전기’의 경우, 참고 자료는 대상 인물에 관한 기(既)발표 전기물이 된다. 따라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자료 자체를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수집된 자료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 인물의 행위에 대해 조소적 태도를 견지한 채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코멘트를 곳곳에 첨가한다. 『안티-아흐마토바』(2007)와 『안티-아흐마토바 2』(2011)에서 카타예바가 취한 글쓰기 형식은 아주 단순하고도 일차원적인 것이었다. 다소 부족한 필력의 카타예바는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주제에 따라 짤막한 코멘트를 적은 다음 그 주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각종 자료들을 장황하게 발췌 인용하는 형식으로 지면을 채워나갔던 것이다. 해당 저서의 포맷을 그대로 옮겨온 다음의 두 인용문은 『안티-아흐마토바』에서 카타예바가 취한 기본적인 서술 방식의 전형적인 예로, 전기 작가의 대상 인물에 대한 태도와 저서의 집필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¹⁶⁾

흐마토바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졸코프스키는 타치야나 톨스타야의 『오케르빌 강』과 빅토르 예로페예프의 『페르시아 라일락』 같은 문학 작품 속에서 패러디되고 있는 아흐마토바의 형상을 추적하거나 아흐마토바의 셀프이미지메이킹 기술에 대해 기술하는가 하면, 로버트 리더의 『안나 아흐마토바. 시인이자 예언자』를 리뷰하며 아흐마토바의 자기신화화 경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반(反)아흐마토바적인 저작을 다수 써낸 토포로프와 졸코프스키, 카타예바는 ‘안티 아흐마토바 트로이카’로 불릴 정도로 서로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리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Пак Сун Юн(2014) “О процессе конструкции и деконструкции ахматовского мифа”, *Korean Journal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26, № 4, pp. 361-367을 참고바람.

15) 러시아판 위키백과의 ‘Анти-Ахматова’ 항목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찬반논쟁을 보라. 가수 쟈피라까지 가세했던 논쟁 참가자들의 면면은 카타예바 저서의 파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https://ru.wikipedia.org/>(검색일: 2018.09.05).

16) 반(反)아흐마토바적 저술에서 보여준 카타예바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 및 아흐마토바 신화의 탈구축 시도에 관해서는 Пак Сун Юн(2014), 365-367을 참고바람.

Когда в Ленинград приехал Роберт Фрост, на даче у Алексева-англиста была устроена его встреча с Ахматовой. <...> Профессор Рив, участвовавший во встрече, <...> написал об Ахматовой приподнято: «Как величава она была и какой скорбной казалась.»

Анатолий НАЙМАН. Рассказы о Анне Ахматовой. Стр. 161-162

Вероятно, казалась о-о-очень скорбной.¹⁷⁾

로버트 프로스트가 레닌그라드에 왔을 때, 영문학자 알렉세예프의 다차에서 프로스트와 아흐마토티바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 이들이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리브 교수는 [...] 아흐마토티바에 대해 아주 양양되어 쓰고 있다: “그녀가 얼마나 위엄이 있었는지 모르며 또한 얼마나 애처로워 보였는지 모른다.”

아나톨리 나이만 『안나 아흐마토티바에 관한 이야기들』. 161-162쪽.
분명, 아-아-아주 애처로워 보였을 것이다.

А Сталин, по слухам,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спрашивает: «А что делает монахиня?»

Анна АХМАТОВА. Т.5. Стр. 200

Но уверена, спрашивал все же не чаще, чем она повторяла эту фразу – письменно и устно. «По слухам» – слухи, как правило, она сочиняла сама.¹⁸⁾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스탈린이 때때로 “그런데 수녀[아흐마토티바 – 논문의 저자]는 뭘 하고 있나?”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안나 아흐마토티바. 제5권. 200쪽.

하지만 그녀가 글로 말로 이 문장을 반복한 것보다는 그가 물어본 것이 어쨌든 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소문에 따르면”이라고 할 때 소문이란 것은 보통 그녀 자신이 지어낸 것이었다.

위의 짤막한 두 인용문에서 보듯이 대상 인물 아흐마토티바에 대한 전기 작가 카타예바의 기본적인 태도는 극도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전기 작가는 리브 교수가 진정성을 가지고 썼던 부분(“얼마나 애처로워 보였는지 모른다”)을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왜곡 없이 인용한 뒤 아흐마토티바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태도를 그대로 투사하여 이 부분을 비아냥조로 왜곡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분명, 아-아-아주 애처로워 보였을 것이다”). 즉 아흐마토티바가 늘 어떤 포즈를 취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해냈다고 확신하는 카타예바는 아흐마토티바의 위의 행동 역시 모조리 만들어진 것으로 자의적

17) Т. Катаева(2008) *Анти-Ахматова*, Минск: Современный литератор, С. 38.

18) Т. Катаева(2008), 43.

으로 해석한 뒤 조롱으로 응축된 단 한 줄의 코멘트로 정리해 버렸던 것이다. 이는 두 번째 인용문에서 전기 작가가 소문 자체를 아흐마토바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단정하며 아흐마토바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아흐마토바 전기로부터 시작된 카타예바의 탈신화화적 글쓰기는 이후에도 몇 년간 지속되었다. 물론, 카타예바의 신작이 출간될 때마다 홍보 문구에는 베스트셀러였던 『안티-아흐마토바』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았다.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의 뒤표지에 인쇄된 작가 소개 역시 『안티-아흐마토바』가 안겨준 유명세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Автор книги – Тамара Катаева, написавшая, пожалуй, самую известную, провокационную биографию Анны Ахматовой – «АНТИ-АХМАТОВА»,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бурную прессу. Виртуозно объединив цитаты из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с нестандартным их анализом, Катаева стала зачинательницей нового жанра в публицистике и вызвала к жизни ряд подражателей.¹⁹⁾

이 책의 저자는, 폭발적인 서평을 받은, 어쩌면 가장 유명하고도 도발적인 안나 아흐마토바 전기 『안티-아흐마토바』를 쓴 타마라 카타예바이다. 문학연구 자료에서 인용한 것을 비표준적인 분석과 절묘하게 결합함으로써 카타예바는 새로운 평론 장르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일군의 모방자들을 만들어낸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도발적’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비표준적인 분석’이란 어떤 분석을 말하는 것인가? 다음에서 우리는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두 편의 전기, 즉 전기의 예로 비코프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를, 반전기의 예로 카타예바의 저서 『다른 파스테르나크』를 선택하여 전기와 반전기의 차이점을 전기 작가의 대상 인물에 대한 태도 및 서술 기법, 자료 선택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도발적’이고도 ‘비표준적인 분석’을 특성으로 하는 카타예바의 반전기의 집필 의도와 기본적인 전략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19) Т. Катаева(2009) *Другой Пастернак. Личная жизнь. Темы и вариации*, Минск: Современный литератор, 뒤표지. 한편, 2010년에 푸슈킨 전기 『푸슈킨. 시기심』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안티-아흐마토바』에 더해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까지 뒤표지의 작가 홍보 문구에 들어가게 된다.

3. 전기 vs. 반(反)전기: 비코프와 카타예바의 저서를 중심으로

시인이자 소설가, 저널리스트, 문학평론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드미트리 비코프는 파스테르나크 탄생 115주년이자 사망 45주년이었던 2005년에 900페이지에 육박하는 파스테르나크 전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를 러시아의 권위 있는 전기물시리즈 ‘ЖЗЛ’에서 출간하였다.²⁰⁾ 이 저서는 출간 이듬해인 2006년에 ‘내셔널베스트셀러(Национальный бестселлер)’상과 ‘빅북(Большая книга)’상을 연이어 수상했을 정도로 평단과 일반 독자층에서 고루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 저작의 성공에 힘입어 저자는 고리키, 오쿠자바, 마야코프스키 같은 여러 문인들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출간할 수 있었고 전기 작가로서의 입지도 다져나가고 있다.²¹⁾

20) 물론, 이 시리즈에서 출간되었다고 해서 모든 저작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 파스테르나크와 유사한 시기에 창작 활동을 했던 시인들을 예로 들어 보면, 2004년에 출간된 만델슈타م 전기는 시인의 삶과 창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완성도 높은 전기로 호평을 받았으나 2009년에 출간된 아흐마토프 전기는 저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미완성본 상태로 출간되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O. Лекманов(2004) *Осип Мандельштам*,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С. Коваленко(2009) *Анна Ахматова*,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그럼에도 검증되지 않는 수많은 전기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러시아 출판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ЖЗЛ’ 시리즈로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전기물이 전문가에 의해 집필된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한 저작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21) 이 가운데 2009년에 출간된 오쿠자바 전기는 파스테르나크 전기와 마찬가지로 ‘ЖЗЛ’ 시리즈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파스테르나크와 오쿠자바 전기(『보리스 파스테르나크』, 『블라트 오쿠자바』)와는 달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표제가 붙은 고리키 및 마야코프스키 전기(『고리키가 있었던가?(Был ли Горький?)』와 『열세 번째 사도. 마야코프스키. 6막 트라게디아-부프(Тринадцатый апостол. Маяковский. Трагедия-буфф в шести действиях)』)는 생애 및 창작 전체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두루 조망한다기 보다는 작가 ‘비코프’의 파토스 강한 문체가 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콘셉트에 맞추어 집필된 저작이었기에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얻었다. 2008년에 출간된 고리키 관련 저작은 애초에 고리키 탄생 140주년 기념 TV용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나리오로 집필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전기’가 아니라 ‘전기적 스케치(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로 정의되었다. 또한 최초로 ‘ЖЗЛ’ 시리즈로 기획되었으나 결과물의 성격이 일반 전기에서 많이 벗어나 시리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같은 출판사에서 단독 출간되었던 마야코프스키 전기의 경우, 서평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평론가 갈리나 유제포비치로부터 “완전한 카오스”를 첫 인상으로 남기는 이 책은 “전기로 읽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전

비코프의 첫 번째 전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이끌어낸 성공과 호평의 비결은 1) 전기 작가가 대상 인물의 삶과 창작에 대해 기본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시선을 견지한 채 단순히 한 개인의 생애 기술에 한정시키지 않고 대상 인물을 당대의 사회와 인물들 속에서 폭넓게 조망하여 기술한 것에서, 2) 전기 작가의 필력과, 연대기적 기술 방식을 취하되 결코 지루하지 않은 구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롤로그(파스테르나크의 출생일자의 『모스크바 통보』 발췌 기사와 사망일자의 『프라브다』 발췌 기사로 구성)와 그의 생애 전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행운아’라는 제목의 제 1장, 그리고 총 3부로 구성된 생애 전체(파스테르나크의 삶을 다차에서 보내는 여름 석 달로 요약하여 제 1부 ‘6월. 누이(Июнь. Сестра)’, 제 2부 ‘7월. 유혹(Июль. Соблазн)’, 제 3부 ‘8월. 변모(Август. Преображение)’로 구분), 마지막으로 시인의 사후를 다루고 있는 에필로그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저작은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파스테르나크의 개인사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주요 시인들(마야코프스키, 츠베타예바, 블로크, 만델슈탐, 아흐마토프, 보즈네센스키)과의 관계를 디테일하고도 의미 있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20세기 초·중반까지의 러시아 문학계 전체를 조망해볼 수 있게 해준다.

비코프는 러시아 문학 교사였던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러시아 문학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다. 또한 창작과 비평, 교육 분야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인 파스테르나크에 대해 문인 비코프가 저술한, 내용면에 서나 형식면에서 모두 주목할 만한 전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백과사전식의 요약적이고도 설명적인 기술 방식을 취하지 않는 이상, 전기라는 장르에서도

기가 아니라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군데군데 저자가 한 번도 다시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800페이지의) 거대하고도 남루한 에세이”라는 혹평을 듣기도 했다. Галина Юзефович(2016) “Стоит ли читать Быкова о Маяковском?”, *Meduza*, 2016.05.20, <https://meduza.io/feature/2016/05/20/stoit-li-chitat-bykova-o-mayakovskom> (검색일: 2018.08.30). 하지만 고리키 관련 저작도 마야코프스키 관련 저작도 2016년에 각각 표지에 ‘고리키’, ‘마야코프스키’라는 제목만을 드러낸 채(마야코프스키 관련 저작의 경우 기존 단행본의 제목에서 ‘열세 번째 사도’라는 표현은 생략했지만 ‘6막 트라게디아-부프’란 표현은 그대로 남긴 채 부제로 삼아 내지에 표기해 두고 있다) ‘ЖЗЛ’ 시리즈로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출판계 내 비코프라는 ‘네임 밸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기 작가의 태도나 문체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창작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비코프의 글에서 ‘비코프’라는 작가의 구성 및 문체적 개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전기 작가로 나선 비코프는 ‘비코프의 파스테르나크’로만 해석될 것을 미리 경계하고 조심하는 듯 프롤로그에서 의식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건조하게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저작에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Русский поэт Борис Леонидович Пастернак родился 29 января (10 февраля н. ст.) 1890 года в Москве и умер 30 мая 1960 года в Переделкине от рака легких. Всей его жизни было семьдесят лет, три месяца и двадцать дней.²²⁾

러시아 시인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는 1890년 1월 29일(신력 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1960년 5월 30일 페레델키노에서 폐암으로 사망했다. 70년 3개월 20일을 살았다.

보는 바와 같이 인용문은 상용구처럼 따라붙는 그 흔한 ‘위대한(великий)’이란 형용어구조차 생략되어 논쟁의 여지를 일체 차단한 사실적인 내용으로만 온전히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 인용문에 이어 한 인간 일생의 중대한 두 사건, 즉 출생과 사망일에 『모스크바 통보』와 『프라브다』에 실린 기사 목록을 인용함으로써 인간은 결국 세계 내 존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기 내용이 세계 속의 파스테르나크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파스테르나크가 사망한 이후(장례식과 1988년, 페레스트로이카 이후)를 다루고 있는 ‘에필로그.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에필로그는 본문의 서술방식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는 에필로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전기 작가 비코프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을 일별해 보기로 한다.

에필로그는 총 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는 파스테르나크 사망 다음 날인 1960년 5월 31일부터 장례식이 있었던 6월 2일까지의 상황이, 2절에서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화부가 작성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장례식 보고서가, 3절에서는 파스테르나크의 시 「8월(Август)」 분석이, 4절에서는 파스테르나크 사후 이빈스카야와 그의 딸 이리나의 체포와 수감, 5절에서는 파스테르나크 사망 이후의 가족사(두 번째 아내 지나이다 니콜라예브나

22) Д. Быков(2008) *Борис Пастернак*,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С. 5.

를 비롯하여 첫 번째 아내 예브게니야 블라디미로브나, 막내아들 레오니트의 죽음)가, 6절에서는 파스테르나크의 복권 과정(1988년 『신세계』지에 『닥터 지바고』가 발표된 이후의 상황)이, 7절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부터 전기가 집필되던 2004년까지의 파스테르나크에 대한 평가와 수용 과정이 다루어지고 있다.

전기 작가는 파스테르나크 사망 직후부터 장례식 장면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으로 생생하게 기술하면서 지인들의 회상록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키예프 역에 나붙은 장례식이 펼쳐질 페레델키노 역의 공지문이나 『문학신문(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에 실린 공지문을 그대로 옮겨 두면서 사실 전달에 집중한다. 또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문화부가 1960년 6월 4일에 작성한 파스테르나크 장례식 보고서 전체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파스테르나크 사망이 사회에 끼칠 파장(시민 봉기)을 당지도부가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도 주목하며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기 작가 비코프의 대상 인물 파스테르나크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시인으로서, 문학연구자로서 비코프는 파스테르나크라는 대상 인물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전기 작가로서 비코프는 대상 인물에 대해 일방적인 변론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런 태도는 파스테르나크와 동시대를 살았던 여러 문인들과의 끊임 없는 비교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만델슈탐과의 비교 속에서 대상 인물 파스테르나크의 자연인으로서의 모습과 창작자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조명해볼 수 있게 한다.

У Амхатовой был любимый тест для новых знакомых: чай или кофе? Кошка или собака? Пастернак или Мандельштам? <...> Два полюса человеческой природы в самом деле легко определить при помощи этих трех дихотомий: два наиболее выраженных варианта – «Чай, собака, Пастернак» и «Кофе, кошка, Мандельштам» – во всем противостоят друг другу. Пастернак и Мандельштам – особенно в тридцатые годы – являют собою выраженные, наглядные противоположности. <...> Вечный удачник Пастернак и хронический неудачник Мандельштам не избежали Голгофы – каждый своей. <...> Пастернак и Мандельштам двигались параллельными курсами – и различие это было предопределено изначальным свойством их темпераментов: Мандельштам – поэт центростремительный, Пастернак – центробежный.²³⁾

아흐마토바에게는 새로운 지인을 만날 때 즐겨 사용한 테스트가 있었다: 차 아니면 커피?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파스테르나크 아니면 만델슈탐? [...] 인간 본성의 두 개의 극은 사실상 이런 세 분류의 도움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다: 가장 표식적인 두 버전 - <차, 강아지, 파스테르나크>와 <커피, 고양이, 만델슈탐> - 은 모든 면에서 서로 대립적이다. 파스테르나크와 만델슈탐은 - 특히 30년대에는 - 표가 날 만큼 명백하게 정반대였다. [...] 영원한 행운아 파스테르나크와 끊임없는 실패자 만델슈탐은 모두 자신의 골고다를 피하지 못했다. [...] 파스테르나크와 만델슈탐은 평행선의 행로로 움직였다 - 그리고 이 차이는 그들의 기질이 지닌 최초의 속성으로 인해 결정되었다: 만델슈탐은 구심적 시인이고 파스테르나크는 원심적 시인이었던 것이다.

비코프는 예술가로서 예술가에 대한 전기 집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고민의 결과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저작으로 나타났다. 전기 작가 비코프는 예술가 파스테르나크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일생과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일상 차원과 창작 차원에서 꼼꼼하게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한 예술가의 일상과 창작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에필로그’에서 진행된 파스테르나크의 시 「8월」에 대한 분석은 예술가의 전기를 다룸에 있어서 창작 차원에 대한 언급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비코프의 파스테르나크 전기는 ‘시인의 시인 전기’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 독자에게 소개된 ‘비코프의 파스테르나크’는 세계 속 한 예술가의 고뇌와 분투가 가급적 담담한 어조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 다른 동시대 예술가들과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파스테르나크를 더욱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하려고 애쓰기도 한다. 즉 파스테르나크에 대해 맹목적인 이상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기 작가가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위해 대상 인물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고루 인용하면서 시인의 외면적 삶과 내면적 삶, 즉 일상적인 차원과 창작적인 차원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다른 아닌 일반적이고도 ‘표준적인’ 전기 기술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²⁴⁾

23) Д. Быков(2008), 447-449.

24) 한편, 러시아에는 창작 및 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부각시킨 출판물이 존재한다. 창작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Pro et contra’ 시리즈를 통해, 전기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파벨 포킨이 편집·출간하고 있는 ‘Без глянца’ 시리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아흐마토바, 고골, 구밀료프, 도스토예프

그렇다면 다시 ‘반전기’의 문제로 돌아와 ‘반전기’ 작가 카타예바가 추구하는 ‘도발적’이고도 ‘비표준적인’ 분석과 기술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 사생활. 주제와 변주』(2009)는 위에서 언급된 두 편의 반(反)아흐마토포바적 저작들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몽타주 장편소설(роман-монтаж)’이라는 특정 장르로 규정되고 있기도 하다.

Герой моего романа – Пастернак. Это он влюбляется, женится, разводится на страницах моей книги. Начинается это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 его женатые года, женатым он и уходит в могилу. <...> автор ни в коей мере не обращается к ним как к реальным и частным лицам, а лишь как к героям тех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торые они выпустили в свет и оказалис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уже – персонажами. <...> «Другой Пастернак»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ругой*. Он отличается и от любого вымышленного персонажа, и от документально исследованной личности. Он – продукт авторского о нем представления. <...> Разница между вымышленным героем и персонажем биографического романа очевидна. В первом случае автор знает о герое все, знает самым достоверным образом обо всех его мыслях и движениях души; в биографии ровно наоборот – не извест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ничего, герой может в любой момент рассыпаться как картонный домик. Но он несомненно был, действовал, и какие-то события его жизни для всех неоспоримы. И они – вехи, между которыми автор может плести свою сеть и уже в нее ловить ту рыбу, какую хочет. Для читателя же оба героя одинаково нереальны. У каждого Пастернак – другой.²⁵⁾

내 장편 소설의 주인공은 파스테르나크이다. 그는 내 책의 페이지들 위에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이혼한다. 이 이야기는 그의 결혼 시절에 시작되고 그는 결혼한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 [...] 저자는 그들을 절대로 실제의 개별 인물들로 대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세상에 내놓아서 이미 등장인물들이 되어버린 작품들의 주인공으로서만 대한다. [...]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는 실제로 *다르다*. 그는 모든 허구의 등장인물과도 구분되고 문서에 의해 연구된 인물과도 구분된다. 그는 그에 대한 작가적 표상의 산물이다. [...] 허구의 주인공과 전기 소설의 인물 간 차이는 명백하다. 첫 번째

스키, 푸시킨 등 러시아 문인 10인 이상의 전기가 출간된 ‘Без глянца’ 시리즈의 경우 주제별로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는 여러 전기 자료들을 편집자의 코멘트 없이 제시함으로써 ‘윤색 없이’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독자들이 ‘윤색 없이’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25) Т. Катаева(2009), 7-8.

경우 저자는 주인공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가장 확실하게 그의 모든 생각과 영혼의 변화를 알고 있다; 전기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이다 - 실제로 아무 것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주인공은 언제나 카드로 만든 집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틀림없이 존재했었고 활동했으며 그의 삶의 어떤 사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명하기도 하다. 그리하여 그 사건들은 부표가 되어 그 부표들 사이에서 저자는 자신의 그물을 엮고 이미 그 그물로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다. 독자에게는 두 주인공 모두 똑같이 비현실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파스테르나크는 다른 모습이다.

‘서문’에서 카타예바는 자신의 저작이 ‘소설’임을 강조하며 파스테르나크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카타예바는 왜 자신의 저작을 ‘장편소설’로 언급한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혹여 제기될지도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저자는 전작인 『안티-아흐마토바』 출간 이후 자신에게 쏟아진 엄청난 비난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창작적 욕심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003년 발간된 반(反)파스테르나크적 저작인 엘리자로프의 『파스테르나크(Pasternak)』가 ‘파스테르나크’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를 둘러싼 모험담을 그린 소설이었다는 점과²⁶⁾ 카타예바가 2010년에 쓴 반(反)푸슈킨적 전기 『푸슈킨, 시기심』이 희곡 형식으로 씌어졌다는 점 등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카타예바는 논픽션을 넘어서, 픽션의 영역에서 극대화될 수 있는 창작적 욕구를 발산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작가의 최근작인 『안티-아흐마토바 2』(2011)의 경우에는 특정 문학 장르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첫 번째 저작에서 사용한 전기 형식으로 복귀하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저작에 비해 특정 장르로 규정된 두 번째와 세 번째 저작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탓에 첫 번째 저작의 인기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짐작하게도 한다.

그러나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를 저자 자신이 ‘소설’이라고 규정했다 할지라도 이 저작을 소설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여전히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발표된 파스테르나크의 전기 자료이고 나머지는 전작 『안티-아흐마토바』에 비해 조금 더 늘어난 분량의 저자 코멘트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포맷 때문이다. (물론, 이 저서는 서점에서도 소설이 아니라 ‘전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는 부제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26) M. Елизаров(2003) *Pasternak*, M.: Ad Marginem.

있듯이 시인의 사생활에 집중한다. 특히, 파스테르나크와 그의 세 여인(첫 번째 부인 예브게니야 루리에, 두 번째 부인 지나이다 네이가우스, 마지막 연인 올가 이빈스카야)의 애정사에 집착하여 이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독자들로부터 혹평과 비난을 듣기도 했다.

Четырехугольник –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страшно. Треугольник – это всегда драма, а то и трагедия. Если двое мужчин и женщина – это гораздо более hard, это всегда сильный эротический накал, даже если – чаще всего – один из мужчин еще, уже или принципиально не является сексуальным партнером. Если две женщины – это всегда гораздо слабее, хотя практически без вариантов мужчина с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внятными объяснениями сожительствует с обеими.²⁷⁾

삼각관계는 실제로 무섭지 않다. 삼각관계는 항상 드라마이며 때로 비극이다. 만약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이면 이걸 훨씬 더 하드하다. 이걸 항상 강한 에로틱한 긴장인 것이다. 심지어 – 가장 빈번하게 – 남자 한 명이 이미 혹은 시종 섹스 파트너가 아닐 경우에도 말이다. 만약 여자 두 명이면 늘 훨씬 약하다. 사실상 예외 없이 얼마간 분명한 이유로 두 여자와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위의 인용문은 파스테르나크와 지나이다 네이가우스 사이의 로맨스에 관해 쓰면서 카타예바가 덧붙인 코멘트이다.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에는 이와 같은 코멘트가 다수 존재하는데, 과연 이런 코멘트가 독자들이 파스테르나크의 삶과 창작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종류의 정보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안티-아흐마토바』 출간 직후부터 반(反)카타예바적 입장을 고수하던 비코프는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가 출간된 이후 파스테르나크 전기를 쓴 전기 작가의 자격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받았다고 고백한다. 이에 비코프는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라는 제목을 패러디한 에세이 「다른 모습의 카타예바(Другая Катаева)」에서 ‘분명, 이 저서의 의도는 비열했다(Замысел книги был, знамо, подловат)’라고 단언하며 카타예바의 집필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7) Т. Катаева(2009), 116-117.

Сущность катаевского метода проста: наклеивание ярлыков, пересказ фактов в базарном тоне,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к физиологическим аспектам биографий, но без единой и цельной концепции такие потуги дешево стоят. В случае с Ахматовой такая концепция – точнее, доминирующая эмоция – наличествовала: женская ненависть, а может, ревность, к трагической, но триумфальной ахматовской судьбе. Как относится Катаева к Пастернаку, не понимает ни читатель, ни она сама. Все пастернаковские женщины Катаевой активно не нравятся.²⁸⁾

카타예바 방식의 본질은 단순하다: 여러 자료들을 짜깁기하고 상스러운 톤으로 팩트를 패러프레이즈하며 생애의 생리적인 측면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지만 하나의 일관된 콘셉트가 없어 이러한 수고들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아흐마토바를 다룰 때 이런 콘셉트는 더 분명했고, 비극적이지만 성공적이었던 아흐마토바의 운명에 대한 여자로서의 증오심, 어찌면, 질투심이라는 주도적인 정서도 있었다. 파스테르나크에 대한 카타예바의 태도가 어떠한지는 독자도 카타예바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듯하다. 파스테르나크의 모든 여인들이 카타예바 마음에 극도로 들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반전기 작가인 카타예바는 작가들의 창작외적인 요소들, 즉 비밀스런 사적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는데,²⁹⁾ 이런 방식을 통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성공했는지언정(하지만 그 관심 또한 길게 이어지는 못했다) 학계에서는 의도적인 냉담과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카타예바는 학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 이와 같은 ‘도발적’이고 ‘비표준적인 분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특히 창작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능력이 없었던 카타예바는³⁰⁾ ‘도발적’이고 ‘비표준적인 분석’이라고 이름 붙여질

28) Д. Быков(2009) “Другая Катаева”, *Профиль*, 2009.08.17, <http://www.profile.ru/arkhiv/item/57347-drugaya-kataeva-57347>(검색일: 2018.08.30).

29) 그로 인해 혹자는 카타예바의 글을 가리켜 ‘면지떨이 같은 언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Ю. Чернявская(2010) “Язык помелом. Часть вторая: Пастернак”, *ARS LONGA*, № 48, С. 29-33.

30) 아흐마토바 생애의 일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카타예바 역시 『안티-아흐마토바』(2007)와 『안티-아흐마토바 2』(2011)에서 시 작품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용 출처에 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였고, 더러 카타예바가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 경우에도 시인의 창작적인 면을 조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피난지였던 타슈켄트에서 돌아오는 아흐마토바를 마중 나온 기차역에서 예전의 결혼 약속을 저버리고 결별을 선언한 블

수 있는 글쓰기 방식, 즉 오로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생활’에 집중하는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카타예바가 파스테르나크의 사생활을, 그 중에서도 세 여인과의 연애사를 600페이지에 달하는 지면을 통해 온갖 증언들을 끌어와 세세한 부분까지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비코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카타예바가 반(反)아흐마토바적 저작을 쓴 이유는 비교적 선명했다. 그것은 시인 아흐마토바에 대한 질투심에서 촉발된 아흐마토바 신화의 탈구축이었다. 하지만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에서 파스테르나크 신화의 탈구축 시도는 카타예바의 공격 대상이 일차적으로 파스테르나크가 아니라 파스테르나크의 여인들로 설정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가려져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파스테르나크의 여인들에 관한 부정적이고도 냉소적인 코멘트들로 인해 결국은 이상화된 파스테르나크의 이미지는 차츰 추락하게 되며 그로 인해 파스테르나크 탈신화화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전기 작가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 없다.

낭만주의적 시인관이 유독 강하게 지배하는 러시아 사회에서 시인에 대한 신화화는 대중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상 신화화라는 것은 창작적인 차원과 일상적인 차원의 복합적인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신화적 존재의 일상에 대한 관심, 즉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신화적 존재의 사생활은 늘 세인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요소였고, ‘러시아 문학의 태양’이자 러시아인들이 ‘우리의 전부(наше всё)’라고 부르는 푸슈킨의 사생활은 시대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수였다. 그리하여 19세기의 인물 푸슈킨의 사생활에 대한 20세기 독자들의 지대한 관심은 베레사예프(Викентий Вересаев)가 엮은 『삶 속의 푸슈킨(Пушкин в жизни)』(1926/2011)의 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³¹⁾ 베레사예프는 초판의 서문에서 ‘그의

라디미르 가르신과 아흐마토바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카타예바는 인용 출처에 있는 대로 아흐마토바의 1937년 작 4행시 「В. Г.」를 인용한 뒤 “불쌍한 가르신, 유명한 여류 시인의 시를 받아서 만족스러웠겠지만 어쩌면 그 자신도 그런 시는 쓸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시인의 작품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이 그저 시인의 작품성을 형편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비하적인 코멘트를 덧붙일 뿐이었다. Т. Катаева (2011) *Отмена рабства: Анти-Ахматова 2*, М.: АСТ, Астрель, С. 48.

31) 베레사예프는 푸슈킨에 관한 저작에 이어 1933년에는 『삶 속의 고골(Гоголь в жизни)』을 출간했다. 한편, 2015년에는 베레사예프 저작의 양식을 그대로 적용한 『삶 속의 파스테르나크(Пастернак в жизни)』가 출간되기도 했다. Анна Сергеева-

전기 작가들에 의해 수정된 점잖고 창작적 영감으로 가득 찬 푸슈킨'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푸슈킨'을 보여주고자 푸슈킨의 동시대인들의 증언들로 구성된 해당 저서를 펴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³²⁾

И вот однажды, пересматривая накопившиеся выписки, я неожиданно увидел, что передо мной – оригинальнейшая и увлекательнейшая книга, в которой Пушкин встает совершенно как живой. Поистине живой Пушкин, во всех сменах его настроений, во всех мелочах его быта, его наружность, одежда, окружавшая его обстановка. Весь он, – такой, каким бывал, “когда не требовал поэта к священной жертве Аполлон”; не ретушированный, благонравный и вдохновенный Пушкин его биографов, – а “дитя ничтожное мира”, грешный, увлекающийся, час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ичтожный, иногда прямо пошлы, – и все-таки в общем итоге невыразимо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и чарующий человек. Живой человек, а не иконописный лик “поэта”.³³⁾

그리고 어느 날, 수집된 발췌문들을 훑어보다가 가장 독창적이고도 매력적인 책이 내 앞에 놓여있음을 돌연 알게 되었는데, 그 책 속에서 푸슈킨은 완전히 살아 있는 듯 일어서고 있는 것이었다. 모든 감정의 변화 속에서, 일상의 온갖 사소함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푸슈킨, 그의 외모, 복장, 그를 둘러싼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의 모습 전체가 “아폴론이 시인에게 성스러운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전기 작가들에 의해 수정된 점잖고 창작적 영감으로 가득 찬 푸슈킨이 아니라 “세상의 보잘것없는 아이”, 죄 많고 잘 반하며 자주 정말 보잘것없으며 이따금 정말 저속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인간이다. “시인”이라는 이콘의 영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의 전기 작가들에 의해 수정된 점잖고 창작적 영감으로 가득 찬 푸슈킨’이나 ‘시인이라는 이콘의 영상(靈像)’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한

Клятис(2015) *Пастернак в жизни*, М.: АСТ.

32) 여기서 주관에 의거한 문학적 쓰기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진실 쓰기의 딜레마가 회상록을 비롯한 전기 장르 전체의 가장 큰 특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회상록 쓰기에 대한 아흐마토프의 솔직한 코멘트(“대체로 회상록에 대해 말하자면, 회상록의 20퍼센트는 어쨌든 조작이란 것을 나 독자들에게 알려 주련다”)는 참고할 만하다. А. Ахматова(2001) *Собр. соч.*: в 6 т., Т. 5, М.: Эллис Лак, С. 172; 박선영(2017) 「АВТО-БИО-ГРАФИЯ: 현대 러시아 자서전 속 자아-내용-형식의 문제」, 『노어노문학』, 제29권 제1호, 218쪽에서 재인용.

33) В. Вересаев(2011) *Пушкин в жизни. Спутники Пушкина*, М.: АСТ, С. 5.

베레사예프의 바람 역시 결국은 탈신화화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아울러 ‘다른’ 관점으로 보겠다는 것은 기존의 관점으로부터의 일탈을 선언하는 것이며³⁴⁾ 이는 크든 작든 긍정적으로 신화화된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카타예바의 저서를 바탕으로 ‘반전기’가 탈신화화의 의도에 의해 탄생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안티-아흐마토바』, 『안티-아흐마토바 2』,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 『푸슈킨. 시기심』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신화화된 시인들을 직·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저작으로, 이 저작들을 통해 러시아 내에서 ‘반전기’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반전기’가 대상 인물에 대한 탈신화화를 목적으로 집필된 장르라는 사실 또한 알려지게 되었다. 카타예바는 아흐마토바를 비롯하여 푸슈킨, 파스테르나크의 사생활에 집중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거리가 있는, 이 신화적 인물들의 ‘다른’ 면을 파헤치고자 했다. 통상 예술가의 신화가 창작적인 차원과 창작외적인 차원, 즉 일상적인 차원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카타예바가 집중하고 있는 ‘다른’ 면이란 것이 ‘사생활’에만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는 다분하다. 이런 문제점은 파스테르나크라는 동일 대상 인물에 대해 상반된 시선을 견지하는 두 전기, 즉 비코프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2005)와 카타예바의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2009)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카타예바의 저작을 통해서 예술가의 생애를 다룬 전기에서 창작과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사생활만을 기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피아니스트이자 시인이었던 프세볼로트 파스투호프(В. Л. Пастухов, 1894~1967)가 러시아를 가리켜 ‘회상록의 나라(страна воспоминаний)’라고 불렀을 정도로³⁵⁾ 러시아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전기’ 장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

34) 『다른 모습의 파스테르나크』 이외에 『다른 모습의 체호프』 역시 출간된 바 있는데, 이 저작은 라도미르 출판사가 1992년부터 펴내기 시작한 ‘러시아의 은밀한 문학(Русская пота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시리즈로 출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작의 성격을 가늠하게 해준다. М. Н. Зологонос(2007) *Другой Чехов. По ту сторону принципа женофобии*, М.: Ладомир.

다. 사회의 양심으로, 세속 성자로 추앙받아온 문인에 대해 민중이 유독 큰 애정을 보이며 신화화를 부추겨왔던 것도 러시아를 ‘회상록의 나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화화된 존재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결국 탈신화화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이러한 탈신화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다름 아닌 ‘반전기’라는 장르였던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반전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신화화 현상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였다.

КСИ

35) В. Пастухов(1955) “Страна воспоминаний”, *Опыты*, № 5, С. 81-90.

참고문헌

- 박선영(2017) 「АВТО-БИО-ГРАФИЯ: 현대 러시아 자서전 속 자아-내용-형식의 문제」, 『노어노문학』, 제29권 제1호, 213-242쪽.
- 이봉지(2003) 「18세기 프랑스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 상황: 데피네 부인의 『몽브리양 부인 이야기』」,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2집, 265-282쪽.
- 에델, 레온(1983) 『작가론의 방법: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김윤식 역, 삼영사.
- Ахматова, А.(2001) *Собр. соч.: в 6 т., Т. 5*, М.: Эллис Лак.
- Быков, Д.(2008) *Борис Пастернак*,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 _____ (2009) “Другая Катаева”, *Профиль*, 2009.08.17, <http://www.profile.ru/arkhiv/item/57347-drugaya-kataeva-57347>(검색일: 2018.08.30).
- Вересаев, В.(1926/2011) *Пушкин в жизни. Спутники Пушкина*, М.: АСТ.
- Елизаров, М.(2003) *Pasternak*, М.: Ad Marginem.
- Золотоносов, М. Н.(2007) *Другой Чехов. По ту сторону принципа женофобии*, М.: Ладомир.
- Катаева, Т.(2008) *Анти-Ахматова*, Минск: Современный литератор.
- _____ (2009) *Другой Пастернак. Личная жизнь. Темы и вариации*, Минск: Современный литератор.
- _____ (2010) *Пушкин. Ревность*, М.: АСТ, Астрель.
- _____ (2011) *Отмена рабства: Анти-Ахматова 2*, М.: АСТ, Астрель.
- Коваленко, С.(2009) *Анна Ахматова*,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 Лекманов, О.(2004) *Осип Мандельштам*, М.: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 Пак, Сун Юн(2014) “О процессе конструкции и деконструкции ахматовского мифа”, *Korean Journal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26, № 4, pp. 349-375.
- Перцов, Н.(2008) “О феномене демифологизации классиков в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е (в связи с «детской резвостью» двух почтенных профессоров)”, *Русский Журнал*, 2008.07.23, <http://www.russ.ru/layout/set/print/pole/O-fenomene-demifologizacii-klassikov-v-sovremennoj-kul-ture>(검색일: 2018.09.05).
- Праздников, Г. А.(2014) *Культура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жизни*, СПб.: Из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и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 Сергеева-Клятис, Анна(2015) *Пастернак в жизни*, М.: АСТ.
- Чернявская, Ю.(2010) “Язык помелом. Часть вторая: Пастернак”, *ARS LONGA*, № 48, С. 29-33.
- Шаталов, А.(1999) “«Голубое сало»: гурманство или каннибализм? Владимир Сорокин в поисках утраченного времени”, *Дружба Народов*, № 10, <http://magazines.russ.ru/druzhiba/1999/10/shatal.html>(검색일: 2018.09.10).
- Шубинский, В.(2008) “Антибиографии: неистовых баб басни”, *OpenSpace.ru*, 2008.06.20, <http://os.colta.ru/literature/projects/79/details/1568/>(검색일: 2018.09.10).
- Юзефович, Г.(2016) “Стоит ли читать Быкова о Маяковском?”, *Meduza*, 2016.05.20, <https://meduza.io/feature/2016/05/20/stoit-li-chitat-bykova-o-mayakovskom> (검색일: 2018.08.30).
- De Saint-Cheron, M.(2016) *Gandhi: Anti-Biography of a Great Soul*, London: Routledge.
- Leitch, Luke(2005) “‘Anti-biography’ of a tormented genius wins £30,000 prize,” *Evening Standard*, 2005.06.15.
- Macgregor, J.(2014) *The Antibiohistory of Ian McNulty*, Bloomington: Xlibris.
- Nye, D. E.(1983) *Invented Self: An Anti-Biography, from Documents of Thomas A. Edison*, Odense: Odense University Press.
- Robillard, V.(2011) *The Devil Sure Does: The Anti-Biography of Nathan Dawn*, Bloomington: Xlibris.
- Scherr, Barry P.(2006) “Settling Accounts with Russia’s Silver Age: Nabokov Writes Akhmatova,” *Russian Review*, Vol. 65, No. 1, pp. 35-52.
- Seretan, L. Glen(1983) “Biography and antibiography,” *Reviews in American History*, Vol. 11, No. 3, pp. 394-398.

Abstract**Antibiography as a Strategy for Demythologization:
Focusing on the Biographies about Boris Pasternak****Park, Sun Y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pecificity of the genre of antibiography, by looking at this genre from the point of demythologization strategy. In the broader sense, the genre of biography can be summarized as an attempt to construct mythologization of subscribed persona, and antibiography can be defined as a kind of demythologization strategy of this mythologized persona. In Russia, the term ‘antibiography’ became widely known, after had been published two monographs-biographies *Anti-Akhmatova*, *Anti-Akhmatova 2*, written by journalist Tamara Kataeva. Focusing on the secret private life of Akhmatova, Pushkin, and Pasternak, Kataeva tries to uncover ‘another’ aspects of these mythical figures. This article compares Dmitry Bykov’s *Boris Pasternak* (2005) and Kataeva’s *Another Pasternak* (2009), written by authors with two different visions on the same persona, and traces the distinguished aspects of the narrative technique, the attitude of the biographer, and the data selection, which were expressed in the example work of biography (*Boris Pasternak*) and the example work of antibiography (*Another Pasternak*). And it confirms that antibiography was created as a strategy for demythologization.

Key words: Biography, Antibiography, Demythologization, Boris Pasternak, Tamara Kataeva, Dmitry Bykov

*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박 선 영

충북대학교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강사. 러시아학술원 러시아문학연구소 박사. 주요 논문으로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러시아 테마에 관한 소고」, 「소쿠로프의 ‘박물관’ 영화에 나타난 문화지속의 가능성에 대하여」, 「미래파 현상의 운명에 관한 소고: 20세기 러시아 미래파와 21세기 한국 미래파를 중심으로」, “Жизнетворческие маски Анны Ахматовой (к стратегиям авто-мифологизации)” 등이 있다.

Park, Sun Yung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D. in Russian Literature, Institute of Russian Literature (Pushkinskij Dom), Russian Academy of Sciences. She has published articles “On the Russian Theme of Wassily Kandinsky,” “On the Possibility of Culture Duration in the ‘Museum’ Films of Alexander Sokurov,” “A Study on the Fate of Futurism: Russian Futurism in the 20th Century and Korean ‘Futurism’ in the 21th Century,” “The Life-Creating Masks of Anna Akhmatova (On the Strategies of Automythologization)” and others.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8. 9. 30
논문심사일:	2018. 10. 15 ~ 2018. 11. 5
심사완료일:	2018. 11. 5